## 일주문

### 강원경찰청서 감사장

송묵 경기도 남양주 동원정사 주지는 경찰포교에 기여한 공로로 3월 27일 강원도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 한 · 중 불교문화 교류 합의

백운 태고종 강원종무원장은 5일 출국해 중국 요녕성불교협회와 한 · 중 불교문화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한국불교신문 사장 임명

혜운 인천 수도사 주지가 1일 태고종 기관지인 〈한국불교신문〉 신임사장으로 임명됐다.

### 운악산서 산신제 거행

초격 경기도 가평 현등사 주지는 현등사 창건 후 처음으로 15일 운악산 산신제를 거행했다.

## 茶聖 최규용 옹 별세

### 성철스님 등 선지식과 교류

'당대의 다성', '살아있는 다선'으로 불리던 원로다인(茶人) 금당 최규용(사진) 옹이 5일 저녁 9시 30분 향년 100세로 별세했다.

1903년 경남 통영군 용남면에서 태어나 일본 와세다 대학 토목과를 졸업한 금당 선생은 한국 육우다경연구회 회장, 부산차인연합회 고문을 지내는 등 한국 차문화 연구와 차정신 확산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1960년초 6년여년에 걸쳐 해인사 장경각과 퇴설당을 보수하면서 시작된 성철스님과의 각별한 인연은 금당선생의 차인생에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경봉, 문성, 청담, 일타, 정천, 석정, 법정 스님 등 당대를 이끄는 대 선지식들과 교류하며 다선일미의 경지를 넓혀 갔다. 또한 차 마시기의 대중화에 진력했던 금당선생은 한 · 중 · 일 차문화 교류에도 앞장서 중국 차인들로부터 '다성(茶星)'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중국 항저우의 차인지가와 해인사 지족암, 부산 삼광사 경내에 '끽다래(喫茶來)'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9일 영락공원에서 부산차인연합회장으로 치뤄진 고인의 영결식에는 많은 차인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천미희 기자

## "불교 우수성 알리는 기회로"

### 월드컵 · 아시안게임 성공법회 주관 현문 스님

"국가적 행사인 월드컵 경기 및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부산 경남의 불심은 물론 전국 사부대중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7일 통도사 금강계단 앞에 야외법석을 마련, 2002년 한 · 일 월드컵 경기 및 제 14회 부산아시안게임 성공기원대법회를 봉행하는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사진)이 밝힌 법회 개최의 의미다. 스님은 "이번 법회가 한국 불교의 중심지인 영남의 울산과 부산에서 개최되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불교계의 동참과 관심을 유도하는 값진 자리가 될 것"이라는 덧붙였다.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법회 입재와 함께 열려 1만여 대중이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기원법회에서 식전행사로 괘불이운이 재현된다. 스님은 "불교회화 전문 성보박물관이 있는 통도사의 특성을 살려 1천여명이 동참하고 32개국 국기와 번을 앞세워 괘불이운을 재현한다"며 전통사찰인 통도사에서만 볼 수 있는 장엄한 광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지역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는 세계인들에게 불교와 우수한 전통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스님은 기원법회와 아울러 템플스테이 관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미 전통인쇄문화 체험, 지구촌이 함께 하는 월드컵만다라 그리기(사진 2면) 등의 이색적인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 확보 등을 마무리했다.

"한국전통문화의 멋과 정신을 꾸밈없이 전하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현문스님. 스님은 석정스님의 초안으로 월드컵 기간중 통도사를 방문하는 외국인 2002명이 참여하는 한국 전통 인쇄기법 체험 프로그램은 불화전문 박물관이 있는 통도사에서만 가능한 이색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자랑했다.

"민족의 정신적 문화유산의 보고인 전통사찰은 세계속에 한국불교를 제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스님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지구촌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는 데 통도사의 모든 사부대중이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 천미희 기자

## 17일 통도사 식전행사로 괘불이운 재현

## "예술 응용 명상 · 禪 대중화"

### '禪문화예술원 세우는 범주 스님

"참선이란 그냥 가부좌를 틀고 든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온갖 번뇌와 스트레스가 많아 수행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번뇌를 제거하고 마음을 맑게 해야만 집중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서예 등 예술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고 정신을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수행이 잘 될 수 있어요. '선문화예술원'은 예술을 응용한 명상을 통해 현대인의 가슴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복합 선(禪)문화 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사와 직지사 등 사찰 참배를 비롯해 서예, 다도, 전통예술공연 등 다양한 예술 체험을 통해 근기에 맞는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선문화예술원에 '선묵(禪墨) 전시관'도 만들어 스님들의 선묵화를 상설 전시해 선묵일여의 경지를 감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스님은 "선지식들이나 사회의 저명인사를 초청한 법회와 강의도 자주 열어 문화예술원을 찾은 이들이 주옥같은 감로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달마도 등 선묵화에서 일가를 이루고 그동안 수많은 자선전시회에 흔쾌히 작품들을 보시해온 범주스님은 선문화예술원 건립에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019-669-7378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40년 참선 … 이젠 대중포교 회향

8일 법주사에서 차로 15분 거리인 속리산 기슭에 '선문화예술원'을 기공한 범주스님(속리산 달마선원장 · 사진)은 선의 대중화를 위해 이번 불사를 하게 됐다고 말한다. 40여년간 선묵화 그리기와 참선수행에만 전력을 다해왔는데 이제는 대중포교로 회향하겠다는 것.

1백평 규모의 '선문화예술원'은 황토흙 등 자연재료로 건립되며 6월경 공사가 마무리된다. 직장인과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말에 마음놓고 와서 예술을 통해 명상 수련을 할 수 있는 수행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월 1~2회 정도 다양한 선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스님은 "인근의 법

## 불교기아도움기구 성금 전달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는 8일 대한적십자사에 기아 및 난민돕기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은 불교기아도움기구가 콩고 기아난민돕기 일일찻집과 프로야구 홍성흔 선수 팬사인회를 통해 모금한 것이다. 김흥국 불교기아도움기구 명예회장(왼쪽)이 서영훈 적십자사 총재(가운데)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 법만스님 법화종 직할 종무원장 취임

법화종 법만스님의 직할교구 종무원장 취임 및 법문가요 음반 발표회가 8일 세종홀에서 열렸다.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만 스님은 '제행무상', '불효자의 눈물' 등 8곡을 불렀다. 스님은 "법문가요는 부처님가르침을 노랫말로 만들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윗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법만 스님.

## 진관사 아버지회 불자장병 위문

서울 은평구 진관사 아버지회(회장 김중원)는 3월 31일 육군 백마부대 수색대대 법당인 솔개법당에서 불자장병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진관사 아버지회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군과 사회의 선배로서 장병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진관사 아버지회 회원들과 불자 장병들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

## 금강경독송회 순국영령 천도법회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7일 경북 칠곡 왜관교 밑 고수부지에서 각 지역 독송회 회원 6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합동천도 법회를 열어 금강경 봉독과 정진으로 장구한 역사 속에 갇힌 순국 영령들의 한이 모두 녹아 천도되길 발원했다. 김재웅 법사가 회원들에게 법문하고 있다.

칠곡= 김용숙 명예기자

## "부산 불교방송 제2의 개국"

### 출력 증강 기념법회 봉행 주홍식 국장

"5kw 출력 증강은 부산불교방송 제2의 개국이라 할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맑고 깨끗한 음질로 법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더욱 분발하여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17일 부산코모도 호텔 충무홀에서 출력증강 기념법회를 봉행하는 주홍식(59 · 사진) 부산불교방송 총괄국장의 말이다.

이날 법회는 부산불교방송의 출력이 지난해 12월 기존 3kw에서 5kw로 증강되자 이를 축하하고 사부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지관스님을 법사로 부산경남의 대덕스님, 신행단체장, 불자 등 5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00년 취임직후 곧바로 출력증강을 추진해온 주국장은 "95년 개국이후 출력증강을 꾸준히 시도했으나 성과를 이루지 못하다 서명운동, 캠페인 등을 통해 불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결실을 맺었다"며 불자들에게 공을 돌렸다.

또한 주국장은 "불교 언론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현대사회에서 불교방송의 출력증강은 부산불교방송의 경사이자 모든 불자들의 기쁨"이라고 밝게 웃었다.

이번 출력증강으로 울산, 밀양, 진해, 통영 등 부산불교방송 방송허가구역의 총 세대수 대비 31.8%가 난청 해소 및 수신상태가 양호해져 '행복을 주는 방송, 부산불교방송'을 듣는 청취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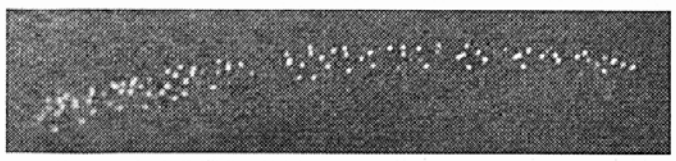
"출력증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송신탑 건설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힌 주국장은 "송신탑 건립이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부산불교방송을 아끼는 사부대중이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천미희 기자

## 울산 등 4곳 난청지역 수신 호전


# "지구촌 역사상 최초로 조상영가 벼슬달아 도솔천궁으로 보내..." 108송이 우담바라 개화!

가스폭발, 화재, 살해, 교통사고, 자살, 낙태등 비명으로 억울하게 죽은 영가는 삼오제를 지낸 후 빠른(7~49일) 날짜를 잡아 천도를 해주면 남은 가족에게 또 다른 흉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천도를 차일피일 미루면 매사 되는 일이라고는 없고 그 혼령에게 가족들이 빙의 되어 정신이상 증세로 나타나고 변사, 객사, 사고, 질병, 사업실패, 가정불화, 주사, 도벽, 폭행, 금전고통, 관재구설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 가정에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법당의 천정에 핀 신비의 꽃 우담바라 108송이"

〈신비의 꽃 우담바라 108송이 피어... 한가지 소원은 이루어주는 미륵 도솔천궁〉

신비의 꽃 우담바라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불자님과 일반인이 찾아오고 있다. 초승달 모양으로 108송이가 피었는데 참으로 신기하다. 얼마 전 새벽 꿈에 미륵부처님께서 자비스런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용화세상 도래의 증표로서 도솔천궁의 꽃을 보내니 이 도량에 와서 누구든지 우담바라에 합장하며 절하면 한가지 소원은 들어주겠노라"하시었는데 그 뒤 21일만에 우담바라를 발견하였다.

〈조상영가 벼슬천도 전문도량, 영안열린 제자 천도되는 영가 보여〉

많은 불자님께서 조상이나 가족의 천도재를 한번쯤 안올려 보신 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재를 올려도 영혼이 천도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에 참으로 답답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곳 도량에서는 영안이 열려 영혼과 신을 자유자재로 보는 제자를 두고 그로 하여금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 역사상 최초로 영가에게 벼슬(천상계의 품계)를 달아 드리는 신술을 터득하여 많은 영가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산 사람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으니 믿을 수 없겠지만 신의 제자는 영화화면 보듯 자세히 봅니다. 도솔천궁으로의 천도는 음식 많이 차려놓고 천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솔천을 주관하는 신의 대법력을 받은 사람만이 천도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도재를 여러 번 올렸어도 풀어지지 않고 집안에 우환이 계속되는 불자님은 방문 바랍니다.

〈4조상 영가 천도비용〉

1단계 — 150만원(자손+배우자+부모+형제+조부)
2단계 — 200만원(1단계+배우자의 부모+형제+조부+증조+고조)
3단계 — 250만원(2단계+본인과 배우자의 외조부-외증조+외고조)
※5대조 이상 시조 조상까지는 별도 상담 ※벼슬천도는 별도비용 추가
※이혼한 경우라도 배우자의 조상영가를 천도해야 본인의 빙의 기운 안 받는다.

〈영가천도 준비사항〉

망자의 성씨 본관과 성명, 본인과의 관계(촌수) 이름을 모를 때는 성씨와 촌수만 알면 되고 천도재 올리는 날 가족이 모두 참석하는 것이 좋으나 바쁠 때는 1명만 참석해도 되고, 그 또한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여 참석이 어려운 경우라도 온라인 구좌로 송금하여 주시면 참석하신거와 진배없이 지극 정성으로 천도하여 드립니다.

〈조상영가를 높은 벼슬로 천도되길 간절히 원하지만 자손들 안 믿어!〉

어제 천도를 한 영가는 직업 군인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천상(도솔천궁)세계에 벼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뜸 도독(都督)으로 올려달라고 얼마나 졸라대는지 진땀을 빼야했다. 도독 아니면 안 간다고 버티니 가족이나 천도를 주관하는 본인도 난처한 입장이 되어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천상세계에 올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음 번에 반드시 도독으로 벼슬을 달아서 천도해주겠다"고 부인이 거듭 말하자 수그러들었다. 천계에 도독으로 올라가려면 비용이 좀 드는데 산 사람은 천상세계에 벼슬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 어찌겠는가? 벼슬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려들지 않으니 말이다. 도독이란 천계에서 백만 군졸을 다스리는 장군의 직책이니 금일 영가도 생전에 못 이룬 꿈을 죽어서라도 이루고 싶었던 모양이다. 아마 지구촌 역사상 영가에게 벼슬을 달아 천도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니 믿어지지 안겠지만 본인도 도솔천궁의 神으로부터 신비의 법술을 받았고 벼슬천도할 때마다 조화가 일어난다.

〈빙의된 사람이나 정신병자는 몸에 들어온 혼령 천도하면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

객사귀나 조상의 원한신이 내 몸에 방의되면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울증 간질등의 증세를 나타내며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는 게 특징이다. 약물을 복용하지만 위장장애만 가져온다. 즉 귀신이 붙었는데 약 먹는다고 귀신이 떨어지겠는가?

〈수자(낙태된)영가! 갈기갈기 짓긴 몸, 살을 바늘로 기어놓은 모습으로 보여〉

3일전 천도재를 올리면서 수자(水子)영가의 슬프고도 독기에 가득찬 어린 모습을 보았다. 몸이 정상이 아니고 살을 바늘로 기워놓은 흉칙한 모습이었는데 첫마디가 "엄마 아빠 다치게 할거야. 나, 발이 없어, 내 발 찾아 줘!" 얼마나 한이 깊었으면 이 말을 수십 번 되풀이하였다. 엄마의 얼굴이 금방 사색이 되어 버려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랬다! 남녀간에 사랑의 산물이지만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심정도 이해되지만 엄연히 살생을 저지른 것이다. 현실계의 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신명계의 법에서는 살인죄에 해당되고 그 영가는 평생 엄마와 아빠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게된다. 또한 부인과 질병인 자궁암과 유방암을 발생케 하고 늘 몸이 무겁게 어깨가 결리고 짜증나며 아이 꿈을 잘 꾼다. 병원에 가보아도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남녀 모두가 이 어린 영가의 영향을 받게되니 사죄하시고 속히 천도해야 살아있는 자손들에게 빙의되지 않는다.

〈모그룹 창업주 중음신으로 구천세계 떠다녀! 神의 법력 없이는 천계 못 올라〉

모 그룹의 창업주 모회장님의 영혼이 자손들의 수많은 천도 공덕에도 아랑곳 없이 중음신으로 떠다니고 있음을 볼 때 굿이나 천도재로 어느 정도 그 분의 원과 한을 달래지겠지만 神의 절대 법력 없이는 천상세계에 못 오르는 모양이다. 참선 기도 중에 두 번씩이나 찾아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돌아갔다. 자손들이 올린 공덕이 모두 헛수고라 하시며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민망할 정도다. 물 한 모금조차 마실 수없이 고통에 찌들고 입술이 타버린 초라한 행색이었다. 이런 분이 생전에는 나라의 경제를 좌우했단 말인가? 참으로 모를 일이다. 그래도 자손들은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믿고 있을 텐데...

※도궁이란 : 도솔천 극락세계의 도솔천궁을 줄인 말임.

대한불교 원효종 미륵도궁 龍大師

영이 맑은 공양주 및 보살 3명 구함
※포교당 40평 자리있음

전화예약문의 : 代 02)417-2358
서울 잠실 송파 신사거리 방문상담은 오전 9시~밤8시(야간 전화상담가능)